

2022년 5.6월호

참 빛 교회

NEWSLETTER

목회서신 | 황주 목사

300km...
총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 중,
우리가 걷은 거리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유럽 각지에서 출발하여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제자인 성 야고보의 시신이 안장된 산티아고 대성당이 있는 곳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순례를 떠나는 목적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 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온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주 올레길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전체 길이가 무려 800km에 달하는 순례길입니다. 이 길을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라고 하는데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 이란 뜻입니다.

총 12개의 길이 있지만, 우리 팀은 가장 유명한 프랑스길(Camino Frances) 이라고 불리는 길을 도전했습니다.

프랑스 길은 출발지인 프랑스 생장(Saint Jean)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총 800km, 무려 40일이 정도가 걸립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날을 포함해서 하루에 25~30km 정도를 걷는 것이지요.

40일의 시간이 없었던 우리들은 2주의 시간으로 300km를 약간 못 미치는 거리를 걷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남은 500km를 꼭 완주 하리라는 마음으로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순례자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국적의 순례자는 세계 9위입니다. 당연 유럽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가톨릭 국가 국민들이 특히 많이 찾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중에서는 압도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루에 20~30km 를 걷는 강행군을 왜 하는 걸까요? 관광도 아니고 트레킹도 아닌 순례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야고보의 행적은 성지이기에 순례자의 길을 같이 걸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함일 것입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의 서부 바닷가까지 복음을 들고 떠났던 야고보의 그 행적은 오늘날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례자로서의 도전과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로 은퇴하신 장년층이 그간 살아온 시간들을 찬찬히 되짚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00km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노년의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같이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꼭 잡은 그 두 손이, 조금씩 걸어가는 발들이, 가방을 메고 가는 뒷모습에서 그분들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은 3대가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 40대 아들, 그리고 10대 손주가 같은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애틋한 감동과 또 다른 인생의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같이 걸어보면 좋겠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노부부가 같이 걸어가는 것만큼 또 3대가 저렇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막연한 스트레스나, 삶의 막막함,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한 해방 창구로 순례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해진 산티아고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것은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삶을, 우리들의 탐욕과 질투로 복잡해진 삶의 구김살들을 단순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전도서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전도서 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주제가 늘 먼저 떠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단순함의 행복, 하나님은 복잡한 삶의 정글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저에게 전도서 7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may & june

NEWSLETTER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전7:14~29)

제가 이번 순례길 여정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머리를 향한 발의 위로였습니다.

3~4일쯤 매일 걸으며 발은 너무 아픈데, 머리는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에서 뇌를 쥐어짜며 고생해야 했던 머리에게 제 다리가 이렇게 말하는 듯 속삭였습니다.

“머리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젠 내가 수고할게, 넌 좀 쉬어라”

머리는 정말 잘 쉬었습니다. 대신 다리가 인생의 순례길의 무게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좀 힘들면 쉬어야지요. 우리는 평범하고 단순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함의 행복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다면, 산티아고 순례길, 꼭 도전해 보십시오. 꼭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잠시 발에게 그 무게를 맡기고 머리가 쉴 수 있도록 걸으십시오.

걸다가 힘들면 쉬고, 다 쉬었다면 또 걷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OO 아 수고했다.
이젠 내가 수고할테니 넌 좀 쉬어라.”



예배와 모임

4월에는 '그날의 부활 이야기', 5월에는 '가볍게 여행하는 법' 설교 시리즈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CDC 방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모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매일 묵상

4, 5월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었고, 온라인 매일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새벽예배 후에는 체육관(Gym)에서 찬교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학기 말씀 훈련학교

황주 목사의 인도로 4주 동안(4/3, 4/10, 4/24, 5/1) 주일 1:30 pm에 진행된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명작 소설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이수정 집사(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을 통해 인문학 강의와 더불어 명작 소설을 읽고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주일)부터 5월 29일(주일)까지 1:30 pm, 늘푸른모임실에서 '노인과 바다', '어린 왕자', '연을 쫓는 아이들'의 북클럽 모임이 있었고, 6월 19일(주일) '파리대왕'책으로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 : 이수정, 201-741-0148



북클럽

박찬영 장로의 인도로 4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7:30 pm, Volunteer Room에서 '평범함 속의 권능'이라는 책으로, 5월에는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으로 북클럽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주제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의: 박찬영, 551-206-2493

목회자 스태프 모임

4월 30일(토)과 5월 28일(토)에 12:30 pm, 1층 회의실(N-110호)에서 목회팀 모임을 했습니다.

Care Sunday

4월 24일(주일)과 5월 22일(주일)에 케어별로 교회 또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may & june

NEWSLETTER

성금요 예배

4월 15일(금) 8:00 pm, 성금요 예배가 대면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금요일 가상 칠연 목상 예배는 김진 자매의 찬양인도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황주 목사의 인도로 성만찬식을 가진 후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부활 주일 뉴저지 교회 연합 새벽예배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4월 17일(주일) 6:00 am, 참빛교회 본당에서 뉴저지 교회 연합 새벽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 간단하게 친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활 주일 예배

4월 17일(주일) 1부는 8:00 am, 2부는 11:00 am에 (2부와 3부 연합) 부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황주 목사는 요한복음 20장 24~29절 성경 본문을 가지고 부활 이야기 설교 시리즈 'Part 2: 의심, 평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2부 예배 중에 세레와 유아세례 그리고 Esther Lee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회는 별도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레: 이미현

유아세례 : Emilea Grace Cho, Dylan Kim, Liam Kim, Jaxon Jeesub Lee



정기 공동 의회

4월 17일(주일) 2부 연합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공동 의회가 있었습니다. 2021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와 공천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Volunteer Sunday

4월 24일(주일) 예배 후 각 부서에서 봉사자 모집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봉사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로 빛나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참빛 선교 후원

5월 1일(주일) 2부, 3부 예배 후 김앤 집사의 도움으로 사무실(S-101호)에서 알레르기과 비타빈 주사를 놓아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참빛 선교 후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My Messy Family Seminar

5월 가족 행사로 안선아 교수를 모시고 다음과 같은 유익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5/8 (주일) 40~50대 여성을 위한 '금쪽보다 귀한 나'

-5/15(주일)20~30대 부부를 위한 '우리들의 가족 이야기'

-5/22(주일)케어모임을 위한 'Can you hear me now?'

그리고 6월 19일(주일) 1:30pm, N-104호에서 40~50 대 남성을 위한 '당신이 최고야!'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미나가 있습니다.

문의 : 이용민 목사, 908-307-3308

Drive Conference

5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함께 모여 아틀란타 시티에서 열린 Drive Conference를 다녀왔습니다. North Point Church에서 진행된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전과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5월 6일(금) 8:00 pm 금요 찬양 예배가 대면과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날에는 Esther Lee(이 에스더) 선교사의 간증과 아이티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선교사는 고 이강휘 선교사의 아내로서 아이티 선교사역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5월 9일(월)부터 23일(월)까지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을 황주 목사와 함께 11명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2022 봄 말씀 잔치

6월 3일(금)부터 6월 5일(주일)까지 참빛교회 37주년 봄 말씀 잔치가 있었습니다. 김용훈 목사(열린문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보같이 살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며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신앙에 도전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6월 4일(토) 9:00 am에는 리더쉽 훈련도 있었습니다.



may & june

NEWSLETTER

NEXT(새가족 환영회)

6월 5일(주일) 1:30 pm, 1층 체육관(Gym)에서 새가족 환영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등록 후 참빛의 새가족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는 행사로써 함께 친교하며 교회에 대한 소개를 나누는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늘푸른 모임

꽃보다 청춘 - 5월 15일(주일) 2부 예배 후 Saddle River Park에서 늘푸른 어르신들을 위한 바비큐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

*어린이 교회는 매 주일 11:30 am에 각 부서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Jumpstart(중등부)는 매 주일 11:30 am에 중등부실에서, Highway(고등부)는 2:00 pm에 EC Chapel에서 온라인/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4/15~4/17에 Spruce Lake Center에서 Youth Retreat 이 있었습니다.

*5/14(토) 12:00 pm, 교회 놀이터에서 Youth 바베큐를 갖고 Van Saun Park에서 재미있는 야외 활동을 가졌습니다.

*5/14(토) 7:30 pm, 본당에서 Praise Night 이 있었습니다. (Agape Global Ministry 초대)

정기당회 모임

1. John Lee 목사님 EC 담당 사역자 부임
2. EMC 중고상점 재개 (S-103호실)
3. EMC 뉴저지 홀사모님 모임 후원
4. 7월부터 예배순서 변경 (1부 예배: 7시 30분에 시작, 2부 예배: 성도님들 성경봉독참여)
5. 9월부터 After School Pilot Program 시작 (담당: 정경택전도사)

6월, 7월, 8월 주요 행사

6월 주요 행사

1. 6/3-5 창립37주년 기념 부흥회 (김용훈 목사, 열린문 교회)
2. 6/4(토) 정기당회 (2:00pm, N-110호)
3. 6/5(주일) NEXT
4. 6/11(토) 연합 찬양 예배 (Agape Global Band, EC & Youth) 7:30pm, EC Chapel
5. 6/12(주일) 돌보미/부돌보미 Celebration (케어모임 방학 6/19~8/31) Youth Graduation Night
6. 6/18(토) Youth Senior Trip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 공연(본당 사용) My Messy Family Event: Strawberry Picking Picnic (EC주관)
7. 6/19(주일) My Messy Family Counselling Event: 4050 남성 세미나, "You are the man" 1:30 pm N-104호 북클럽: 파리대왕, 이수정 집사, N-110호, 1:30pm 밀알 나눔 음악회 (한애라 집사 간증)
8. 6/25(토) 목회자 스태프 모임(8:00am~10:00am, N-110호), Shine Decoration
9. 6/26(주일) 창립주일예배, 중고등부 연합 졸업예배 (Youth 세례/입교), Shine Decoration
10. 6/27-7/1 Shine 2022 9:30am-12:30pm

7월 주요 행사

1. 7/1(금) 금요찬양예배 (어린이/청소년교회 예배는 쉽니다.)
2. 7/2(토) 정기당회 (8:00am, N-110호)
3. 7/5-8/12 R.O.R. Summer Camp
4. 7/10(주일) 교사 Celebration 12:45pm~2:00pm
5. 7/11-16 도미니카 선교
6. 7/25-8/5 한국 선교

8월 주요 행사

1. 8/14-23 아리조나 선교
2. 8/27(토) 목회자 스태프 모임

재정보고

<4월 총 수입 및 지출>

Total income : \$66,911.09

Total expense : \$66,302.15

<5월 수입 및 지출>

Total income : \$74,818.25

Total expense : \$97,607.80

